

보 도 설 명 자 료

('12. 11. 26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세계일보 “그린카 기술개발사업 대기업
‘무임승차’ 논란”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

1. 보도내용 ('12.11.26, 세계일보 15면)

- ‘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원천기술개발사업’에서 대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수가 전체의 44%를 차지하고,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이 적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입장

- ‘13년 계속 예정과제 기준으로 대기업이 주관기관인 과제수의 비중은 44%이나, 실제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대기업 지원비중이 ‘12년 29%임

- 대기업 지원금액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

* 동 사업내 대기업 지원금액 비중 : ‘09 45%, ‘10 39%, ‘11 31%, ‘12 29%

- 동 사업 내 참여기업의 부담비율은 지식경제부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‘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’(지식경제부 고시)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며,

- 주관기관을 비롯한 모든 참여기업은 현금 이외에도 인건비 등 현물부담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고 있음

- 한편, 자동차 산업구조상,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구매로 연결하여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(대기업)의 참여가 필수적임

- 공동 연구개발의 성과로 개발된 제품을 대기업이 구매함으로써 사업화에 따른 실질적 혜택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, 동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win-win효과를 가지고 있음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김정희 과 장

김장희 서기관 (02-2110-5634)